2021년

설날 가정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힘교회

설날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 **인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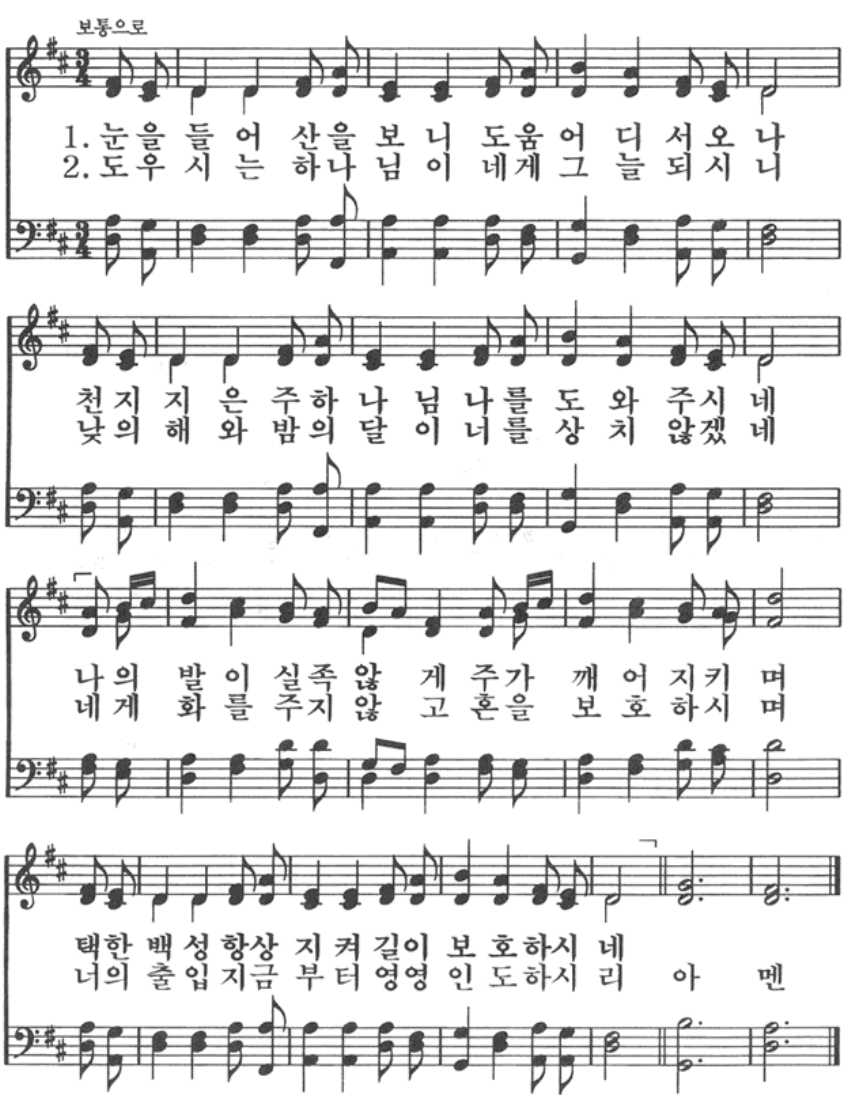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한다는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 · · · · · · · · **사도신경** · · · · · · · · · ·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 · · · · · **383장 (통일 433장)** · · · · · · · **다같이**

38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통일 433)



기 도 · **가족 중 한사람**

말씀나눔 · · · · **창세기 28장 15절 (구약 41쪽)** · · · · **맡은이**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나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크게 낙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에서 지치고 돌아왔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가져오기도 했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이 살아야 할 축복의 땅에는 형 에서가 남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땅과 하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70살이 넘은 야곱이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먼 길을 도망가다가 첫 번째로 쉰 곳이 벧엘입니다. 그곳에서 지쳐 돌베개를 베고 야곱은 겨우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처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현대의 삶으로 바꾸어 보면 잘나가던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서 외로이 해외로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5)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 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길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꼭 다시 이끌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비록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비참한 삶이지만 야곱의 장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현재 상황은 꿈꾸기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의 축복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승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아는 사람의 삶은 이미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처럼 소망이 사라진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곱의 소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게 된 신앙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갈거야"라고 하십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자기 이름)**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나**(자기 이름)**를 지키며 나**(자기 이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자기 이름)**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 도 · **인도자**

찬 송 · · · · · · · **338장 (통일 364장)** · · · · · · · **다같이**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통일 364)

주기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내힘교회